

저작권분쟁, 그후 어찌 되었나

‘출판訟事’의 안팎과 전망

올초 출판계의 핫이슈로 등장했던 월북작가의 저작권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또 한때 ‘형사고소’라는 극한상황이 연출돼 각 일간지를 떠들썩케 했던 외국번역물의 저작권 분쟁들은 해결이 됐는지. 그밖에 저작권을 둘러싼 크고작은 다툼들은 과연 그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외국번역물에 대한 국내 첫 형사고소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시드니 셸던의 「시간의 모래밭」을 비롯해서 올초 월북작가작품 저작권시비에 불을 붙였던 이기영의 「갑오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사례는 모두 7건 정도. 이 가운데 외국번역물의 분쟁은 형사고소됐던 2건을 포함해서 모두 해결됐으나, 월북작가작품에 대한 저작권시비는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다툼이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저작권, 양쪽의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

외국작품 가운데 「시간의 모래밭」을 둘러싸고 한국어판 독점권을 지닌 김영사(대표 박은주)와 이를 무단번역출판한 일선기획(대표 장재충) 사이에 벌어진 대결은 국내 최초의 형사고소사건이었던 만큼 당시 출판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 출판사 대표와 번역자, 인쇄업자까지 고소됐었으나, 결국 올초(1월25일)일선기획측에서 사과문을 내고, 「시간의 모래밭」의 제작·배포 일체를 중단하며, 민·형사상의 피해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데 합의를 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다. 김영사의 박은주씨는 “출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생각으로 무단번역 출판행위

한때 마스크에 떠들썩하게 오르내렸던

저작권분쟁들은 그후 어찌 되었는가.

외국저작권물을 둘러싼 저작권분쟁의 경우

법정까지 비화됐던 사건들은

모두 깨끗이 마무리된 상태인 반면,

월북작가의 저작권시비는 아직도

두려운 해결책 없이 표류하고 있다.

에 대한 경중을 울리고자 했으나, 처음부터 일을 확대시키고 싶진 않았고 또 상대방도 앞으로 계속 출판할 뜻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서로 좋은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됐던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어쨌든 이번 소송사건이 깨끗이 해결됨으로써 “좋은 작품을 정당하게 출판하고 있는 많은 출판사들의 기운을 북돋워준 셈”이라는 소감도 덧붙였다. 현재 이 「시간의 모래밭」은 10만부 이상의 판매기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사에 등장한 강대국들의 흥망을 흥미롭게 다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꼽혔던 영국 역사학자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 역시 형사고소사건으로 번졌던 책. 지난해 미국 랜덤하우스와 한국어판 독점계약을 맺은 한국경제신문사(대표 李揆行)가 이를 무단으로 번역출간한 좋은책(대표 백인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12. 19)한데 이어 형사고발(1 2. 29)까지 하게 됐던 것.

이 사건 역시 현재 깨끗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좋은책에서 원고와 필름, 플로피디스크를



저작권다툼의 대상이 됐던 책들, 사진은 모두 판권계약에 의해 출판된 것이다.

반환, 폐기하고 판매부수(2000부)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며, 가처분신청 때의 변호사비용 일부를 변상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후, 한국경제신문사측에서 가처분신청과 형사고소를 취하(89. 1. 26)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김용우차장(출판국)은 “영세출판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것은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출판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출판사들이 좀더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출판에 임하길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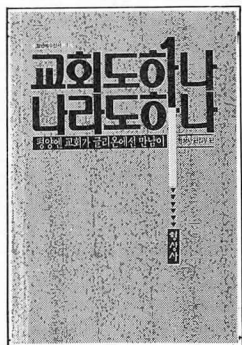
한편 고소를 하지 않고 조용히 분쟁을 해결한 경우도 있다. 「아르바트의 아이들」(전3권)을 국내 최초로 소련과 저작권계약하여출간한 열린책들(대표 홍지웅)과, 같은 제목의 책을 단행본으로 낸 우아당(대표 김은수) 사이에 일어났던 시비도 그 하나. 지난해 12월 양쪽의 대표가 만나서 이미 인쇄된 우아당의 책은 판매를 허용하되 더 이상의 인쇄는 하지 않기로 하고, 전체 매출액의 10%를 열린책들에 홍보판촉비 형태로 보상하겠다는데 합의했다. 열린책들의 대표 홍지웅씨는 “상대 출판사가 믿을 만한 곳이었고, 악의로 무단번역출판했던 것이 아니어서 쉽게 해결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로 하고, 전체 매출액의 10%를 열린책들에 홍보판촉비 형태로 보상하겠다는데 합의했다. 열린책들의 대표 홍지웅씨는 “상대 출판사가 믿을 만한 곳이었고, 악의로 무단번역출판했던 것이 아니어서 쉽게 해결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월북작가저작권, 해결책없이 다툼 계속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쓴 「페레스트로이카」는 시사영어사(대표 민영빈)와 중원문화사(대표 김순례), 사계절(대표 김영중)간에 문제가 됐던 책. 이 책의 서방권 저작권자 ‘하퍼 앤 로’ 출판사와 한국어판 출판계약을 맺은 시사영어사측에선 나머지 두 출판사에 대해 각각 초판발행분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필름을 회수했으며 이에 대한 합의서를 받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끝맺음했다.

◀ 청년예수신서 ▶ 1 ◀



교회도하나 나라도하나

“평양봉수교회·장충성당은 선전용인가,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천 공동체인가?”

- ▶ 조선기독교도연맹·평양봉수교회·기독교도 1만여명
- ▶ 조선천주교인협회·평양장충성당·천주교인 800여명
- ▶ 북한교회 김운봉 목사 설교 수록
- ▶ 평화와 통일의 화년 1995년

편집부편 / 330면 / 3,600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형상사

◀ 청년예수신서 ▶ 2 ◀



장영달 저 / 270면 / 3,200원

참과 거짓

장영달
옥중기록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한 사람의 양심일지라도 고통받는 일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나는 염원한다”

반성문 한장을 거부한 ‘양심의 죄’로 긴급조치 (민청해력사건) 203명 중 가장 적은 형량 7년형을 받고도 가장 오랜 징역 6년 10개월을 살아야 했던 장영달 그의 진솔한 옥중기록이 여기에 있다.

중로구 송인2동 206-1 (광성BD 307호) / 서울동대문우체국 사서함 182호 / ☎ 236-6404

외국번역물의 저작권분쟁이 비교적 마무리가 잘 된 데 비해, 월북작가작품의 저작권 분쟁은 아직 뚜렷한 해결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朴泰遠의 「갑오농민전쟁」을 둘러싼 깊은샘(대표 박현숙)과 공동체(대표 김도연)의 다툼은 깊은샘측이 형사 고소한 것을 시발로 본격화됐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 기소(4.27)중이며, 공동체에서 나온 제1부 두권에 대한 압수명령이 내려진 상태. 박태원의 저작권상속 위임장을 지닌 2남 朴再英씨와 저작권 일체를 계약한 깊은샘은, 최근 부인명의로 계속해서 제2, 3부를 출간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다시 형사고소(5.9)했다. 깊은샘 대표 박현숙씨는 “월북작가 저작권도 다른 저작권과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이니만큼 판례를 남긴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측도 저작권이 불분명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어떤 여과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밖에 李箕永의 대하장편소설 「두만강」도 월북작가 저작권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이다. 지난해 12월 이기영의 장손 李祥烈씨와 계약을 맺은 풀빛과, 남한의 유족에게 월북작가 저작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사계절의 다툼이 끝나지 않고 있다. 현재 풀빛출판사와 李祥烈씨 등 유가족은 문공부로부터 저작권상속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사계절이 펴낸 洪命燾의 「입격정」(전9권)은 85년 당국에 의해 지형과 책을 압수당했는데, 지난 2월초 사계절측이 당국의 출판금지처분에 대해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홍명희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송이어서 결과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분쟁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러한 저작권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길은 없는가. 저작권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음을 한 출판인

은 지적한다. “저작권법의 중요한 목적은 ‘작품보호’에 있다. 누구나 책을 만들게 됨으로써 우수한 작품이 망가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책을 만드는 출판인의 양식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많다. 한국경제신문사 출판국장 金根鎬씨는 “외국저작물에 대한 국내 계약사항을 알수 있는 ‘공시제도’가 아쉽다. 예컨대 「출판저널」같은 출판전문지에 ‘공시란’을 만든다면, 어디서 무슨 책을 계약했는지 모르는 채 중복출판하거나 계약시도를 하는 등의 경제적인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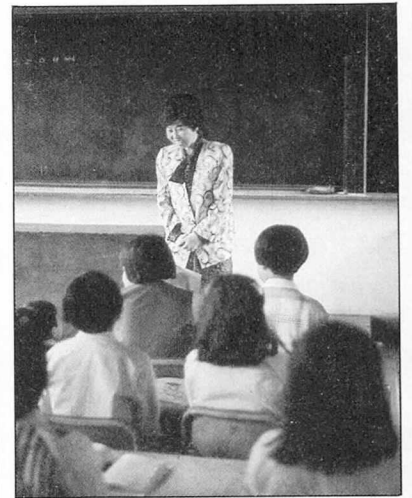
한편 ‘형사고소’에 대한 좀더 진중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일각의 소리도 있다. 버틸 때까지 버티보겠다는 계산과, 일단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겁을 주겠다는 의도도 다소 작용했으리란 지적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 許燾成씨는, 저작권법에서 형사제도 자체를 없앤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재의 저작권분쟁은 모두 민사로서 충분히 해결할 사안이라고 본다. 민사적인 문제를 형사고발로 해결하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흑백논리에 의한 법원 판결로 같은 출판업자끼리 ‘원수’가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형사고소는 좀더 신중하게 자제하길 바랐다.

그러나 이같은 저작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저작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지키는 출판인의 양식이 기본적인 문제라는 게 모두의 공통된 결론이다. 출판평론가 李重漢씨는 “양식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을 때 문제는 해결된다. 저작권분쟁 조정기구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극한상황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분쟁을 해결하는 출판인들의 태도가 좀더 성숙해지길 바랐다. — 김지원 기자

표지의 말

산골짜기 숲속의 ‘스승의 날’

전교생이 34명 뿐인 강원도 양양군 월촌분교



강릉에서 속초 쪽으로 난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주문진이 있고, 그곳을 지나면 양양군 현남면이 나온다. 거기에서 국도를 벗어나 왼쪽의 논밭 사이로 난 길을 5리쯤 들어가면 임호국민학교가 있고, 그곳에서 다시 산골짜기를 따라 10리쯤 들어간 월촌리에는 임호국민학교 월촌분교가 있다.

강원도의 어느 가파르고 험한 산골짜기들에 견주면 이곳은 훨씬 아늑하고 산세가 순해 보이는 곳이다. 월촌리는 양지말, 응달말, 옷달래, 된말, 동구말, 꽃골, 느리리 같은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 그 마을들에서 월촌분교에 오는 아이는 통틀어 34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1학년은 한명 뿐이다.

1959년에 분교로 세워진 이 학교는 1971년에 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1983년에 분교로 줄어든다. 그것은 이 골짜기에서도 아이를 기를 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도회지로 나가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어느 농촌에서도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것은 농촌의 현실을 잘 알려주는 보기이다.

그렇더라도 그곳의 아이들은 밝고 순진하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학생들과 선생님 전부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선생님이 네 분이니까 한 분에 채 10명이 안되는 꼴로 학생들이 배당된다. 이상적인 교육조건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둘째줄 왼쪽이 교원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된 김영민선생, 그 옆이 올해로 28년째의 경력을 쌓고 이 분교로 스스로 지원해

옹겨 온지도 3년째인 주명숙선생이다. 그 옆은 역시 1년쯤 교편을 잡은 김치영선생이고, 맨 오른쪽은 원종식선생이다. 원선생은 23년간 교편생활을 했으며,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에서 가르친 지가 2년이 된다.

이곳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스스로없이 한데 어울려서 놀고 공부하고 생활한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기도 하고, 학급문고 등을 통한 독서와 글짓기 지도도 하고, 아이들이 지은 글을 모아서 이따금 책을 펴내기도 한다.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독서실 벽에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만든 ‘양서 속에 담긴 지혜 읽으면 내것 된다’는 등의 쪽지도 붙어 있다.

부슬비 내리는 골짜기를 돌아나오다가 문득 되돌아보니 조그마한 학교는 이미 5월의 숲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사진·글 강운구)

합리적인 출판문화를 일구는 두 총서

윤普成社 서울·마포구 구수동 21-1 ☎ 719-0784

출판·편집총서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2. 출판의 진실
3. 책의 혁명
4. 책만들기
5. 잡지편집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
6. 책은 만인의 것
7. 뉴미디어 용어사전
8. 출판회계
9. 편집자의 세계
10. 출판경영론
11. 교정기술 (실습지·모범답안지를 합철한 것)
12. 현대출판원론
朴有鳳·蔡白 공저 값 7,000원

차례

제1부 출판학 총론
 제1장 출판학의 본질과 특성

제2장 출판의 본질과 기능

제2부 출판의 역사
 제1장 문자문화의 발전
 제2장 도시의 역사
 제3장 잡지의 역사

제3부 출판학각론

제1장 출판과 언론자유
 제2장 출판문화론
 제3장 출판산업론
 제4장 출판독자론

글 더 잘쓰기 총서

—어떤 글이랴 팔리는가—

1. 글의 비밀
2. 논픽션 쓰는법
3. 소설의 방법과 인식
4. 추리소설 쓰는법
5. 동화 쓰는법
6. 그림책 쓰는법
7.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